

불량LED연등 설치 55사찰 대응전 천장서 불꽃 ‘툭툭’

[진단] 사찰이 안전하지 않다 2

2015년 11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불을 끄던 주지 스님이 화상을 입고 대응전이 모두 불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시도유형문화재 불상 1점을 비롯해 총 2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이 화재의 원인은 대응전 내부에 설치된 ‘미인증 LED연등’이었다. 방재의날인 5월 25일을 맞아 국민안전처의 ‘2016 전통사찰 안전점검’ 결과를 살펴본 결과 미인증 LED연등을 사용한 사찰이 5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 LED연등제품 지도 결과

대상 (사찰)	결과	
	양호	불량
2,099	2,044	55

국민안전처 사찰 안전점검 종합 결과

대상 (사찰)	결과	
	양호	불량
3,184	2,925	259

불량내역(312건)

소방 257	전기 17	건축 6
가스 8	기타 25	소계 312

분야별 주요 불량사항

- 소방 - 소화기 불량, 소화전 펌프 누수
- 전기 - 분전함 불량, 누전차단기 미설치
- 가스 - 가스경보기 및 차단기 미설치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의 2016년 부처님오신날 맞이 소방훈련 모습.

국민안전처 안전점검서 적발
미인증 LED연등 화재 주원인
고압 흐를시 1시간 내 발화
“교의 사찰 대부분 고압 위험”

연등 실태조사는 처음있는 일이다.

최근 사찰의 LED연등 사용은 급증하고 있다. 기존 백열전구 연등보다 전기를 절약하고 관리가 쉽기 때문이다. 이번 부처님오신날 기간에도 불축위 거리연등을 비롯해 서울지역에서만 약 2만여개의 연등이 LED연등으로 교체됐다.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소방 관계자들은 시중에 풀린 LED연등 중 2/3가량이 미인증 제품일 것으로 추정하고 지도를 진행하고 있다. 많은 수의 미인증LED연등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은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의정부소방서가 지난 3월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2016화재조사 발표대회에서 발표한 ‘전통사찰 LED연등 작화개연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사례’에 따르면 미인증 LED연등은 비정상전압 시

발화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근식 의정부소방서 화재조사팀장은 “미인증 LED연등은 보호회로가 없이 220볼트에만 적합하게 설계됐고, 그 이상의 전압이 공급되면 열이 나면서 터지거나 내부가 녹아버린다”며 “실험결과 240볼트 전압을 공급하면 1시간 내로 불꽃이 일어났다. 사찰이 주로 위치한 교외지역은 전압감소를 감안해 230볼트부터 240볼트 전류가 공급되기 때문에 미인증 LED연등 사용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소방학과 교수는 “최근 연등, 크리스마스 트리 등에서 발화한 화재가 늘고 있다. LED연등의 경우 그 재질로 조그마한 불꽃이 튀어도 발화하게 된다. 보통 사찰의 환경상 초기진압이 힘들고, 목조인 사찰 건물로

불이 붙기 쉽다. 심지어 대형산불로 전개될 수 있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위험에도 아직 사찰의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찰 전기·소방공사 등을 진행하는 원진건설 김석두 부사장은 “국가검사를 통과한 KC인증제품이 개당 4000원인데 비해 미인증은 개당 1500원 선으로 일반 용품점에서 미인증을 가져다 놓는게 태반”이라며 “스님들도 일반용품점에서 쉽게 구매해서 막 달고 있다”고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사장은 “스님들이 KC인증도 모르는 등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사찰이 많아 방재시스템이 잘 갖춰진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에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다. 범종단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활동을 시작했다. 심주완 조계종 문화부 팀장은 “4월부터 일선사찰에 미인증 LED연등 교체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

“KC인증도 모르는 스님 많아”
조계종은 4월부터 계도 나서
일반사찰·군소종단 관심 필요
정부·불교계 개선 움직임 주문

다. 사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철선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사찰은 불교계 뿐만이 아닌 전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기에 불교계와 정부당국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3184개 전통사찰에 대해 진행된 안전점검 종합결과에서는 259개소에서 312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불량사항으로는 소방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1건은 사안이 중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기관 통보가 56건이며 나머지 265건은 조치명령이 내려졌다. 두 번째 불량요소는 전기부분으로 17건이었으며 건축과 가스 불량은 각각 6건과 8건이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불교여성개발원·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5월 18일 제12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를 공동주최했다. 불교계 첫 주최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성명서 낭독 후 “위안부 한일합의 전면무효”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저희가 손잡아드릴게요”

불교계 사회단체, 5월 18일 위안부 수요시위 첫 주최

“남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수요시위에 참가한 후, 위안부 문제가 내 일이자 우리 모두의 일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희대 평화나비 소속 박소혜 학생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불교여성개발원·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5월 18일 공동주최한 제123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 수요시위에는 이웃종교인들은 물론, 전국 각지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어린 청소년들이 함께 참석했다. 불교계에서 수요시위를 주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는 하루 전(17일) 별세한 위안부 피해자 공점영(96)·이수단(95) 할머니를 추모하는 묵념에 이어 사회노동위원 고금 스님의 법고 의식,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성명서 낭독 등으로 이어졌다.

먼저 황태웅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행은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이 깃발린 상황에 억만금의 돈을 가져온들 해결할 수 있겠느냐”며 “한·일정부는 12.28합의를 원천무효화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과 지엄한 역사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김재윤·김나영·김서연(석관초·5년) 학생은 “우리 정부는 많은 고통을 받은 할머니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에 흔들렸다”면서 “일본이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돌아가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 자리에 계신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들도 사과를 받아들일지 모른다. 하루빨리 일본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당차게 외쳤다.

이밖에도 사회노동위 대표발언서 해찬 스님은 “오늘 우리는 ‘제1231차’란 유례없는 시위 역사에 서 있다. 이토록 긴 시간이 지나도록 바뀐 것은 하나 없

올바른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순환하는 역사가 아닌 전진하는 역사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들 대다수가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진실을 밝히고 정의로운 역사를 세우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역사의 진실과 민족 유린사실을 부정하는 12.28위안부 합의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며, 또 다른 2차 가해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식 참회와 법적 배상 △세계인에 대한 엄중한 사과 △12.28합의 전면 무효화와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영수 할머니, 동티모르 위안부 피해자 이네스 할머니,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해찬·고금 스님 등 7명, 태고종 노동인권위원장 진화 스님을 비롯해 건대부속고·의정부 송양고 등 전국 학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익를 기자

속세의 인연 내려놓고, 수선안거로

5월 21일, 불기2560년 하안거 결제

불기2560년 하안거가 5월 21일 시작됐다. 2000여 눈푸른 납자들은 속세의 인연을 내려놓고 제방선원에서 수선안거에 들었다. 조계종 중정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일을 앞둔 20일 전국 수행납자들의 분발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전국 선방에서는 동안거 결제 하루 전날 결제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각자의 소임을 정하는 용상방을 작성하고, 결제 당일인 21일 오전 사찰별로 방장스님 등 큰스님을 모시고 결제법어를 청한 후 3개월간의 참선정진에 들어갔다.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수행에 매진하고 있으며, 일반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하안거 기간 동안에 정진에 동참한다.

한편, 안거는 출가수행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한 곳에 모여 외출을 삼가하고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조계종에서는 동월기 3개월과 하월기 3개월 동안 전국의 스님들이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